

과일산업대전 수상 휩쓴 전남 과일

농식품부 대표과일 선발대회

영암 단감·보성 참다래 최우수상 나주 배 장려상...우수성 입증

전남에서 생산된 다양한 과일들이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기후, 풍토, 재배 방식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해 과일 맛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킷텍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암 단감 박문수 농가와 보성 참다래 박창현 농가가 최우수상, 나주 배 김행복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해 전남 과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표과일 선발대회는 국산 과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입과일과

경쟁 가능한 생산·소비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한 사과, 배, 단감 등 일 반과수 7종과 밤, 뽕은 감 등 산림과수 4종을 대상으로 외관 및 개구, 과수원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 1점과 과종별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모두 46점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은 장관표창과 200만원, 우수상-장려상-특별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영암 박문수 농가는 도포면에서 단감 2.1ha를 14년째 재배하는 30대 청년 농업인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업자재에 등록된 자재만을 사용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성 박창현 농가는 벌교귀위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벌교읍에서 참다래 1.1ha를 재배하는

16년차 경력의 베테랑 농업인이다. 직접 퇴비차를 제조하고 주기적으로 시비해 작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의 참다래는 특량만의 해풍을 맞으며 자라나 맛과 당도가 뛰어나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또한 철저하다. 나주 왕곡면에서 30년간 배를 재배한 김행복 농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당도가 높고 좋은 과형과 색깔을 띠는 그의 '신고' 배는 2.3ha 면적의 과원에 해마다 석회를 시비하고 완숙한 양질의 퇴비를 사용해 토양관리에 힘쓴 것이 그의 비결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올해 이상저온과 집중호우로 어려운 여건 속에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한 농업인들에게 축하 말씀을 전한다"며 "전남의 명품과일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등 연구 성과 풍성

올 시책·연구사업 발표회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이 지난 23일 오후 한 해 감염병, 미세먼지, 물 부족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와 지역 현안과제 연구에 전남, '시책·연구사업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발표회에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재)전남생물환경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분야별 연구성과물 총 16편을 선보였다. 주요 발표 과제는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

감시체계 구축 ▲하수(下水)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도내 해안지역 자생 비옥의 활용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하수기반 감염병 연구는 하수 내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지역사회로의 유입·확산 가능성을 추정해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강화 및 조기 경보를 위해 진행됐다.

안양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갖는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도정 현안과제 및 사회적 이슈 연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우수사례 공유 역량 강화

완도군보건의료원 최우수상

20개 사업 심사 4개 사업 시상

전남도가 지난 24일까지 이틀간 담양운천리조트에서 도, 시군 및 연계·협력 사업기관 담당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 실무자 역량 강화 계기를 마련했다. <사진>

이번 대회는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해 중독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사업 분야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확산 및 발전적 과제 발굴을 위해 진행됐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우수사례로 12개 기관에서 20개 사업을 접수, 서면 심사를 거쳐 4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 결과 최우수에 완도군 보건의료원의 '코로나19 심리방역대책 노인 우울증 예방 관리', 우수는 해남군보건의료원의 '내 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 장려는 순천시보건의료의 '지역 응급의료 위기 해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함평군 보건소의 '행복충전 장애인 주간 재활 건강증진교실'이 선정돼 전남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대회

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사례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 실무자를 통해 현장에 공유되고, 확산돼 향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개발 '새청무' 고품질쌀 품종 인정

전국 쌀전업농 대회 대상·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제26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 대회'에서 새청무 품종을 재배하는 해남의 농가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선발대회에서는 새청무쌀을 재배해 쌀 생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대상(대통령상)에 충북 괴산 윤진용 회원,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해남군 이승관 회원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전국에서 추천한 2023년산 벼 시료 48점을 대상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식미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잔류농약검사), 한국식품연구원(품질검사) 분석의뢰와 최종 외부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새청무쌀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전남 토지와 재배 여건에 맞춰 7년에 걸쳐 육성한 품종이다.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해 밥을 지으면 찰기

가 돌고, 윤기가 흐르며 식감이 쫄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남도는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해 전국 1만7000 CU편의점에서 전국에선 유일하게 새청무쌀을 단일미로 사용한 삼각김밥, 도시락, 김밥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등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고품질 새청무쌀은 신동진쌀과 청무쌀의 장점을 모아 육성한 품종이어서 도복, 수발아, 병충해 등에 강해 농약 사용이 적고, 생산 단수도 좋아, 도내 농업인에게 인기가 많고 전남 벼 재배면적의 52%를 점유한 전남도 대표품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자체감사 콘테스트' 2년 연속 대상

해양폐기물 처리 특정감사 호평

전남도가 지난 24일 감사원의 '2023년 자체감사사상 콘테스트'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차지해 2년 연속 대상 수상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는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전국 최고 우수 자체감사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우수 직원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2022년에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로 '대상'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5월부터 예비심사, 전문가심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로 전남도의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13명의 감사 인원

을 6개월간 투입해 현장을 찾아가 해양폐기물 실태를 확인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폐가, 갯벌이모자반 등 해양폐기물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을 전환, 그 활용·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로만 취급했던 해양폐기물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기구 우수 감사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사상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어르신 100세 무병장수 프로젝트' 담당자 간담회

전남도가 '전남 어르신 100세 무병장수 프로젝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어르신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사업별 담당자와 노인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5개 사업별 담당자와 조준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남 어르신 100세 무병장수 프로젝트'의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2024년 계획수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특히 2014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전남의 노인 문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사업을 소개하며 100세 무병장수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인복지 전문가 초청 강연도 이어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환경 조성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과거 단순히 '오래사는 것(기대수명)'에서 벗어나 '어떻게 오래 사는 나(건강수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댔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